

UV 플렉소 수입 대체, 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통한 국내 UV 잉크 업계 선도



박 태 선

IPUV(주) 대표이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공해 잉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용제형 잉크 사용시 환경 작업자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유기용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자외선경화 잉크(UV 잉크)를 선호하고 있다.

UV 잉크는 기존의 다른 잉크들과 비교해 순간건조, 저온고속의 생산성, 무용제, 무공해 등 현대사회의 요구성에 부합, 현재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전해 예견되고 있는 산업군이다.

그라비아 잉크를 비롯한 인쇄잉크를 생산하고 있는 IPC(주)는 1996년 UV 스크린(CD 잉크)와 돛판 잉크를 생산, 판매하며 UV 잉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3년 1월 IPC UV 잉크사업부는 UV 잉크의 전문화를 위해 국내 최초의 토탈(total) UV 잉크 관련 제품



▲ IPUV(주)의 H액과 코팅액



◀ IPUV(주)가 생산하고 UV인크 제품군

개발 생산 업체 IPUV(주)(대표이사 박태선)로 독립, 발전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잉크전문회사 동양잉크 UV인크에서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를 습득한 박태선 사장과, 국내 최고의 기술진을 보유한 IPUV(주)는 현재 UV 옙셋 잉크, UV 스크린 잉크, UV 라벨 잉크, 각종 코팅류는 물론, UV 플렉소 잉크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UV 잉크는 무용제, 무공해 제품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순간건조방식으로 뛰어난 작업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인쇄방법이 작업성이 뛰어나다.

박태선 사장은 “최근 인쇄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UV 잉크는 인쇄방법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UV 잉크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PUV(주)는 타 UV 잉크 생산 업체와 달리 UV 잉크 전용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안정된 제품을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고객 맞춤형 잉크 생산을 위해 소량의 조색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IPUV(주)가 생산하고 있는 돛판용 UV 잉크(제품명 SCL)은 각종 라벨지와

PS 및 종이컵, 플라스틱 캔, 치약 튜브 등에 사용되며, 뛰어난 경화성과 부착성을 자랑한다.

옙셋용(제품명 SCO)는 아트지, 마넨라지와 금, 은박지 등 종이류에 적용이 가능하며 선명한 색상과 고풍택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고속인쇄가 가능하고 우수한 경화성, 망집 재현성 및 유화적성이 양호한 특징을 가진다. 내스크래치성 및 내마모성도 우수하여 다양한 인쇄소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IPUV(주)가 자랑하고 있는 플렉소용 UV 잉크(제품명 SCF)는 감열지와 유포지,

IPUV

PE와 각종 라벨지에 사용할 수 있는 'UV 플렉소 전용' 잉크이다. 박태선 사장은 "국내에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던 UV 플렉소 잉크를 현재 국산화 했다"면서 "이달 중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IPUV(주)는 국내 최초로 UV 전용 H액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H액(제품명

Star Cure H액)은 노(저)알콜 타입으로 인쇄 트러블을 감소시켜 인쇄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탁월하다.

소량 다품종의 제품 생산과 신속한 납기 시스템과 A/S를 통해 차별성을 추구하는 IPUV(주)에서는 아주 적은 소량이라도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제품이 가능하며 UV 스크린 잉크, UV 오프셋

잉크(금은박, PP), 플렉소 잉크, UV 그라비아 잉크 등 모든 인쇄 방식에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다.

박태선 사장은 독자 법인 전환 이후 무엇보다도 시장 요구를 파악하는데 주력, 틈새시장을 공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2003년 4억원의 매출에서 올 상반기 8억여원 이상의 매출을 달



▲ IPUV(주) 생산 현장



◀ IPUV(주)는 고품질 인쇄 기술연구소를 보유 생산 및 시험을 하고 있다

성, 괄목할 만한 성장율을 기록했다.

현재 IPUV(주)의 전직원은 6명. 박 사장은 “적은 인원으로 영업과 기술, 생산까지 다 기능, 다역할을 수행하며 가치창조를 통한 최상의 UV 잉크를 생산하며 발전하고 있다”면서 함께 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박태선 사장은 지난 연말 이익금의 10%를 직원복지에 투자하고 10%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기로 전 직원들과 약속, 현재 경조사를 챙기고 있는 한편 복지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현재 IPUV는 클린사업장 지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ISO도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회사로 거듭날 발판 준비에 분주하다.

국내 굴지의 동양잉크에서 입사 당시부터 8여년 동안 UV잉크 개발에만 주력, UV잉크의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박태선 사장. 그는 샘플테스트를 통한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국내 브랜드의 불신은 국내 잉크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현재 IPUV는 수치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동

남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 수출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IT산업을 비롯해 응용할 수 있는 산업이 무한한 UV 잉크 업계.

박태선 사장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국내 UV 잉크 업계를 선도할 포부를 갖고 있다.

국내 최고의 UV 잉크 업체로 우뚝 설 IPUV(주),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 한 IPUV(주)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

박초혜 기자